



NEW PRODUCT

AKG 레전드 DNA를 이어받은 프로용 폴더블 헤드폰

AKG K245



AKG의 K시리즈는 담담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톤으로 많은 엔지니어에게 사랑받아온 모니터링 헤드폰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K245는 명기로 칭송받는 AKG K52의 뒤를 이으면서도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해 스튜디오 및 라이브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이다.

글 | 이정민 기자 | 자료제공 | (주)테크데이터파이에스 | www.techdata-ps.com

AKG 명품 스튜디오 모니터 헤드폰의 진화

AKG의 KXXX 버전 넘버링에서 첫 자리가 1, 2인 것은 스튜디오 모니터용임을 의미한다. K245 역시 스튜디오 모니터링에 적합하게 만든 헤드폰이다. 먼저, 기존 K52가 채택했던 40mm 트랜스듀서보다 더 크고 섬세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50mm 다이나믹 트랜스듀서를 채택해 편치감 있는 저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의 출력에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존 K52 등 제품이 헤드폰 앰프를 사용했을 때 제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해진 상황이다.



이전 모델에 비해 커진 50mm 다이나믹 트랜스듀서를 채용해 저음의 웰리티가 많이 올라갔다



귀에도 편안하고 수리가 쉽도록 설계하다

또한 100% 밀폐형이 아닌, 오픈백 스타일의 세미 클로즈드 이어 패드를 채택해 오랜 시간 모니터해도 편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한 70년대 AKG의 레거시 모델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정교하게 제작된 오픈 백 그릴의 마감은 아주 만족스럽다. 얇은 가죽을 사용해 늘 금세 닳아서 지저분해지던 이어 패드 재질 역시 튼튼한 가죽으로 보강되었으며, 그저 푹신한 것이 아니라 귀의 모양에 잘 들어맞도록 이어 캡 스펜지 재질이 개선되었다. 또한 단선되었을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야만 교체가 가능했던 케이블 역시 단자로 쉽게 탈착 가능한 교체형으로 바뀌었다. 헤어밴드 역시 넓고 부드러운 가죽 재질로 바뀌었다.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강화해 휴대에도 무리 없음

다양한 기기의 출력을 지원해 어떤 상황에서도 스튜디오 퀄리티의 음질을 들려주는 만큼, 제품의 휴대성도 강화되었다. 무게는 500g이던 K52에 비해 거의 반 수준인 295g이며 각 부분을 구부려 휴대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었다. 제품이 접히는 힌지 부분은 강한 금속 재질로 제작해 망가지지 않도록 보강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AKG K245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엔지니어나 뮤지션들이 들고 다니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가격 또한 경쟁사 제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AUDIO PA**



AKG의 레거시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음향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한 오픈백의 섬세한 가공 모습



망가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케이블 역시 탈착형으로 바뀌었다



전혀 접을 수 없던 K52 등 기존 모델과 달리 AKG K245는 휴대하기 쉽도록 접하게 설계했다. 각 포인트의 힌지는 튼튼한 메탈 재질로 보강했다